

“미래인재 만나러 다시 캠퍼스로” 관세청, 지역거점 대학 정책특강 확대

- 충남대 특강에 이어 광주 전남대에서 청년대상 정책소통 이어가
- 역대 최대 규모 ‘452명 증원’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이끌 우수 인재 확보에 총력

관세청은 5월 6일(수) 오후 1시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확대되는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고,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 징수와 통관 관리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무역안보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과 무역범죄 단속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관세청의 기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관세행정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채용 제도,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연에 나선 이종욱 차장은 “무역안보는 이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과제가 되었으며, 관세청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창의적 시각과 도전정신이 미래 관세행정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우수한 지역 인재들의 공직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충남대학교에서 두 차례 정책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전남대학교 특강까지 지역 거점 대학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452명 증원을 바탕으로 미래 관세행정을 이끌 인재 확보와 청년 공직 진출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종태 (042-481-7660)
		담당자	사무관	이준호 (042-481-7695)

